	가정통신문	군산동고등학교 2025
	2025. 06. 20. (금)	인성인권부 ☎(063)450-1170

제 목	학생 흡연 관련 안내 및 흡연예방교육 자료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 아니라 드릴 말씀은 최근 흡연하는 학생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처음 담배를 접하는 연령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르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다양합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담배가 지닌 가장 큰 특성은 '중독성'입니다. 교내 흡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학교 밖 상황까지 확인할 수 없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도 교내 흡연 행위로 적발될 경우 학부모님께 공지하고, **학교생활선도위원회**를 열어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내 흡연 문제는 학생의 건강을 위협함과 동시에 나아가 간접흡연이라는 2차 피해, 화재 위험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계기 교육만으로는 흡연 예방과 문제 해결의 한계가 있기에 가정에서도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비흡연 학생들의 흡연 예방과 흡연 학생들의 금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흡연이 주는 인체 피해

◦ 피부의 노화가 빨라져 주름이 생기기 쉽다. (금연하면 서서히 회복된다.)
◦ 뇌경색과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 (금연 후 5~15년이 지나면 비흡연자 수준으로 낮아진다.)
◦ 입. 목. 식도에 암이 생기기 쉽다. (금연 후 5~10년이 지나면 위험성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 치주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 (금연 후 서서히 낮아진다.)
◦ 후두암에 걸릴 위험성이 20배 이상 높다. (금연하면 비흡연자 정도로 낮아진다.)
◦ 미각과 후각 기능이 떨어진다. (금연 후 2일 정도면 회복되기 시작한다.)
◦ 폐암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 (하루 10개비=약 4배, 하루 50개비=약 15~50배, 금연 후 5~10년이 지나면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 위암, 위·십이지장궤양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 (금연하면 서서히 낮아진다.)
◦ 여성은 폐경이 빨라지고, 자궁암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 (금연 후 수년이 지나면 비흡연자 정도.)
◦ 저체중아, 조산, 주산기 사망(태아나 신생아 사망)의 위험성이 높다. (임신 직후 금연하면 비흡연자 정도로 낮아진다.)

2. 전자담배는 정교하게 과학적으로 설계된 약물 전달 장치일 뿐이다.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종류**이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는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되어 있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대상**이다. 또한 금연 치료제의 역할로 그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바 없으며 니코틴 함량은 용기에 표기된 것과 실제 함량에 차이가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유발한다. 성분을 분석한 결과 측정 가능한 수준의 발암물질 및 독성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 건강을 위한 유일한 금연 방법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다. 전자담배는 '금연 치료제'가 **아닌** '담배'다.

3. 간접흡연 및 3차 흡연

■ 간접흡연의 정의

본인이 직접 흡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으로 '강요된 흡연' 혹은 '강제적 흡연'이라고 한다.

■ 간접흡연의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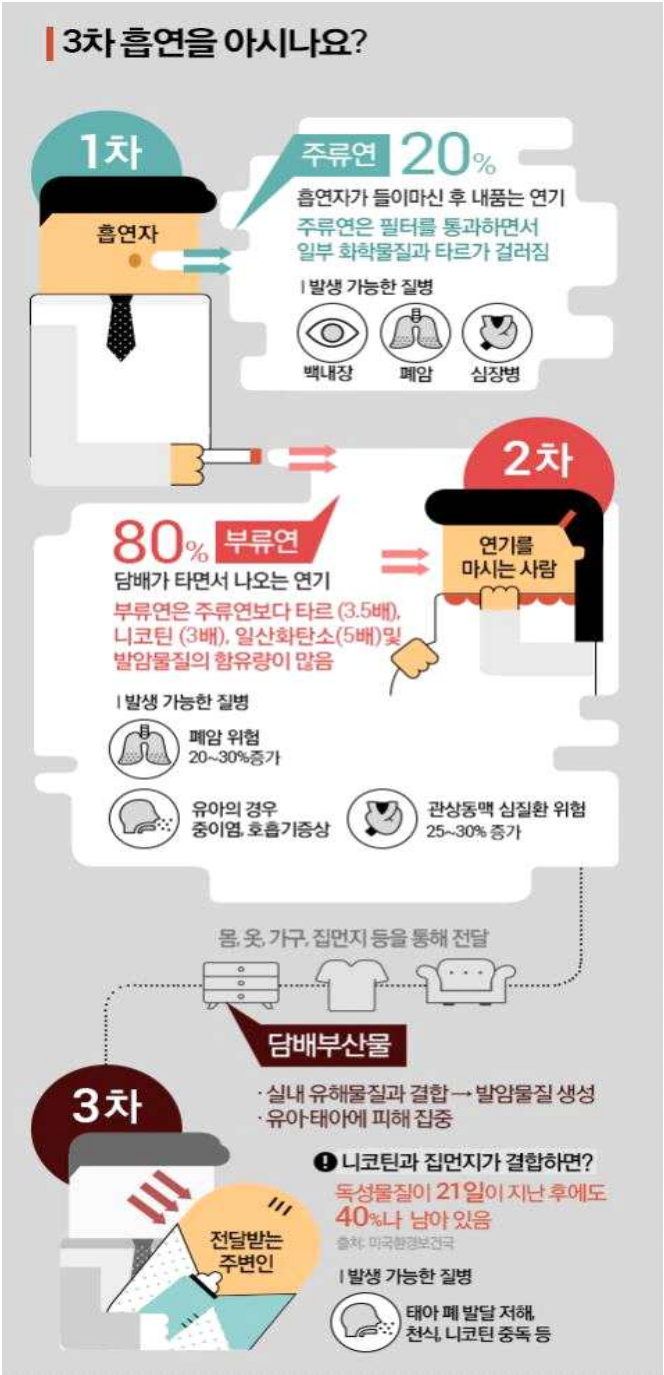
간접흡연 노출은 전 세계적으로 다른 어떤 실내 공기오염 물질보다도 해롭고, 가장 위험한 환경성 건강 위해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비흡연자라 하더라도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되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폐암 발생 위험이 20~30% 증가한다. 아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경우 중이염, 기침, 쌕쌕거림, 가슴이 답답한 증상과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기능 부전, 하기도 감염, 저체중아 출산, 유아 급성 사망 증후군의 원인이 되며, 그 밖에도 뇌종양, 림프종, 백혈병, 천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이 제시되고 있다.

■ 3차 흡연 정의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이 흡연자의 몸이나 옷, 벽, 가구, 아이들 장난감, 집 먼지 등에 흡착된 뒤 다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과정을 통해 담배의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 3차 흡연의 피해

3차 흡연은 담배 연기에서 발생한 각종 유해 물질이 공기 중의 다른 성분과 만나면서 그 유해성이 더 커지므로 직접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해롭다. 특히 영유아는 성인보다 체중이 적게 나가고, 호흡이 빠르며, 바닥에서 기어 다니므로 3차 흡연에 노출되는 정도가 성인과 비교해 더 높다.



2025년 6월 20일

군 산 동 고 등 학 교 (직인생략)